

한국문단 그 새로운 지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구 인 환

문학은 영원하지만 문단은 계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텍스트로 전파된 문학은 독자의 손에 의해 그 의미가 다성적으로 정리되고 문학성이 부여되지만, 문단은 문학인의 집합적 조직으로 총체적인 단위성으로 시스템화한다. 문학은 작가 개인적인 창조이지만 문단은 문인의 집단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종합체이다. 물론 작가 경향에 의해 유파가 이루어지고 사조를 이루지만, 문단은 그 이념이나 유파에 의해 문예운동의 중추를 이루어 오히려 문인을 압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단의 정립과 정체성에 의한 문학의 발전과 그 전파, 그리고 생활을 위한 역동적인 중심축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문단이 정체성을 일탈하여 이기적 집단이 되거나 품격을 훼손하는 혼미를 가져 올 때는 문단답지 못하고 보기 흉한 집단으로 그 위상이 추락한다. 작금의 문인단체(협회) 문예지, 문예운동과 사업 등 문단의 상황은 일탈과 변형으로 정체성을 훼손하고 이기적 사적 활동의 무대가 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갈등을 이루고 있다. 그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이의(異議)를 할 수밖에 없다.

한국문단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단이 과연 지식정보사회에서 어떤 위상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문단답게 그 위상을 정립하여 한국문학의 문학 공간을 형성하여 그 본래의 중추적 소임을 다하고 문화적 유대를 이루고 있는가. 만 명이 넘는 문인이 어떻게 문단에 동참할 수 있고, 또 격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신인다운 신인을 배출하고, 그 향기가 높고 품위가 있는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는가. 문단이 무인과의 수평성을 일탈하여 수직적으로 군림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작가수업을 치열하게 하는 신인을 등단시켜야 하고, 남발되거나 파당되지 않은 문학상을 수여해야 하며, 수직적으로 패권화되는 지도부가 함량 미달이 아닌 개방적이고 적재인재가 추대되어야 하며, 문예지가 신인장사와 문학상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하고, 문단이 독서 운동을 하여 문학을 생활화해야 한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고 문단은 품위 있는 봉사로서야 한다.

문인은 시민이면서도 보통 시민으로 그치지 않는다. 문인은 치열한 작가의식에 의한, 인생의 존재를 해명하고 사회의식으로 통찰하고 고발하며 그날을 위한 삶의 지표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문학의 생활화에 의한 문학적 문화를 고양해야 한다.

한국문단이 정화되어 품격 있고 문화의 선두에서 문학의 진흥과 생활화로 100년 한국문학의 새로운 비상을 기대한다.